

대행 스님

한생각에 우주를 쌀 수도 있고 우주를 굴릴 수도 있다

하루살이로 살라 하심은

질문 요즘 많은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이 현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큰스님 법문 중 하루살이로 살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답변 여러분에게 "하루살이로 살라!"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습니다. 그것은 왜냐하면, 사랑을 한다고들 모두 말은 잘들 하죠. "아유! 나는 당신을 사랑해." "나는 아들을 사랑해." 뭐, 누구나가 그저 만나서 좋으면 그냥 사랑이라고들 하죠. 그런데 말입니다, 그 사랑도 찰나 사랑이 돼야지 착을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비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 해요. 마음도 찰나 마음을 전하면서 끝없이 연결되는 원인이, 찰나찰나 이렇게 만나고 연결되고,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니까, 그렇게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.

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 무심(無心)의 도리이고, 말과 말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 유심(有心)의 도리예요. 무심과 유심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?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둘입니까?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속일 수가 없지만, 속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말로는 속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. 하지 못할 말이 많고 말입니다. 그러나 진실하게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은 진짜로 내가 한 일과, 내가 하고 돌아가는 일과, 내가 말한 거를 전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.

그래서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그 속마음이 바로 우주 천지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. 만물과도 서로 직결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 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게끔 받고,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 소립니다.

찰나 사랑, 찰나의 행,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, 지금.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,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다면,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 도리만큼은 나옵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도, 얼른 쉽게 말해서 "내 모습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. 너의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운다면 그 주장자로 인해서 내 주장자와 네 주장자가 둘이 아니니라. 그래야만이 내 주장자를 찰나에 너를 줄 수도 있고 찰나에 네 주장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."라고 하신 거죠. 쉽게 말해서 '찰나에 통신이 된다' 이 말씀이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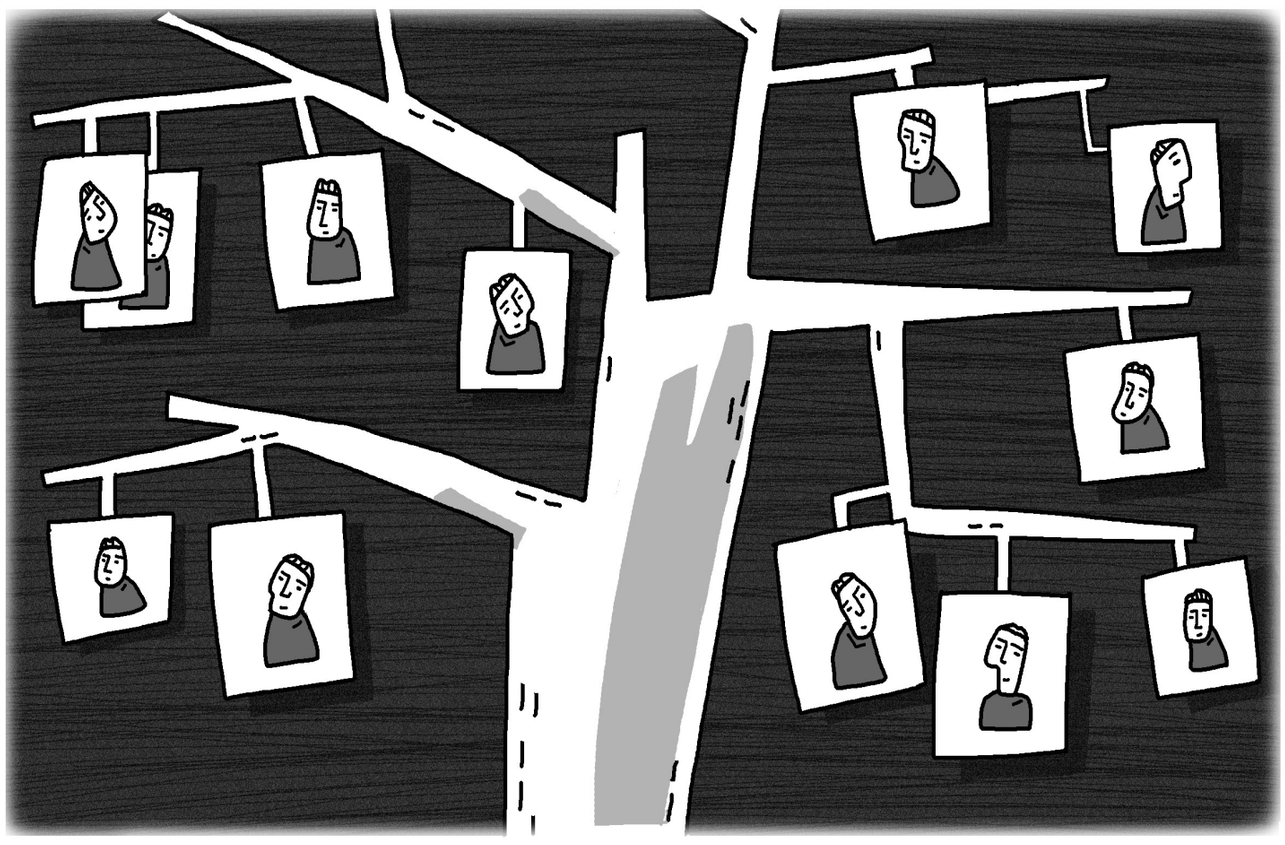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이 세상만사가 다 어지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간편합니다. 뭐, 내일 걱정, 어저께 걱정, 어저께 후회, 앞으로 살아나갈 걱정 이런 거를 하느라고 모두 야단들인데요, 사실은 '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찰나찰나 찰나 생활로 살아라' 하는 건 정말이지 영원한 삶을 갖다 주는 겁니다. 부부지간에도, 부모지간에도, 자식지간에도 찰나 사랑이라는 것은,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주고,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둘이 아니게 진정으로, 자비로써 그냥 만났다가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야죠? 거기다 착을 두면 진짜 사랑을 진짜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.

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공 뿌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. "나무가 푸르르게 살려면 다 뿌리에게 맡겨라. 뿌리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, 위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또 흡수해서 내려보내고, 서로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 푸르르게 살 수 있다." 하는 겁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나무가 딴 뿌리의 이름을 찾거나, 딴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이런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가 없죠. 기복으로 하면 에너지가 그냥 자기 나무로, 딴 뿌리에서 내 뿌리로 올 수가 없죠.

물론 내 나무의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뿌리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낼 수 있지만, 이름과 형상을 찾아서 밖으로 헤매다 보면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달마 대사도 말씀하셨죠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나무가 저쪽 나무를 찾고 이름을 부르면서, 예를 들어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'향나무여, 향나무여!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.'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 향나무에서 소나무로 에너지가 갈 수가 없어요.

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. 그런데 그 나무는 잎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뿌리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뿌리를 무시한다 이 겁니다. 아니, 여러분이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. '뿌리만이 나무 전체를 가지고 있구나.' 하는 거를 못 믿어서요.

먼저 들어왔고 먼저 배웠고, 나중 배웠고 나중 들어왔고 이걸 떠나서, 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,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,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바로 지름길이다 이거죠. 내가 여러 분한테 항상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, 여러분이 한마디 듣거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손 한 번 튕기는 걸 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지 못하니까 되풀이하게 되죠.

왜 절에서 종을 울리는 줄 아십니까? 영혼들을 전부 불러서 종소리를 들려줌으로써 '이 종소리를 듣고 영혼의 귀가 뜨이고 눈이 뜨여서 이 도리의 섭류를,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섭류를 알아라. 네가 이거를 알아야 영원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.' 하는 소립니다, 그게.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

번뇌 망상으로 집중이 안 돼요

질문 나의 참나, 주인공을 발현해 보려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번뇌, 망상이 일어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바르게 정진할 수 있을까요?

답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것저것, 잎이니 가지니 하지만 뿌리만 알면 나무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. 뿌리를 모른다면 윗가지와 잎새만 알지, 뿌리는 모르거든요.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 가지마다 잎새가 달렸는데, 그 잎새는 수효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. 그걸 하나하나 세려면 셀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수효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, 이 공부하는 건.

한생각에 우주를 쌀 수도 있고,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, 우주를 굴릴 수도 있고, 우주를 들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.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, 한 그릇 한마음이라는 이 뜻은 정말이지 뿌리 없는 기둥이요, 잎새 없는 바로 불바퀴 불기둥입니다. 불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…, 광력이나 전력, 자력, 통신력 모두가 거기에서만 배출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전력을 끌어서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.

그러니 여러분, 누가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고,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,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뼈저리게 건건이 괴로움을 주

☞ 22면으로 계속

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

월간 어린이잡지 「마음꽃」 인기코너
〈아무나 쓰는 이야기〉 모음집



우리가 잘 몰랐던
어린이의 진짜 마음을
알아볼까요?

신간!

장재준 외 56명 글 | 박희진 그림
144쪽 | 12,800원 | 주니어 김영사

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.
월요일에는 놀랴,
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,
수요일에는 책 읽으랴,
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……,
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……
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!
-본문 중에서

인터넷 판매중

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(교보문고, 알라딘, 예스24 등)에서 구매하세요.